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1툃에 즈음하여

불멸의 대강, 새로운 전환

승원군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전선에 먼저 불을 지피고 사상사업의 화력을 강화하여 위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1년이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을 들으며 만세의 환호를 터치던 대회장의 그 격정과 환희는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

되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은 우리 당사상전선의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리정표로 된다. 지난 1년간 각급당조직들과 당사상일군들은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긍지높이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포성을 높이 울려 그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우리는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통해서도 그것을 점검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성한 모자이크화화 모서리였다.

도당위원회는 5대교양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적전도 치밀하게 짜고 들었다.

모든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의 기수가 되어 떨쳐나서서 하는것과 함께 강사들을 비롯한 초급선진

일군들의 역할도 높이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지난해 9월 백송혁명사적지당사속영소에서 도안의 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의 강의연도 의의있게 조직하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여 온 도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앞아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련속 울려나갔다.

이 나날 도당위원회와 도예술선전대, 은산군, 평원군기동예술훈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도당위원회는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사상전의 파격을 바로 정하고 적응한 수단과 방법을 총체 적용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 들었다.

덕천관광의 변명남동무가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못다한 일을 애국의 맘으로 봉창하였다고 제기했을 때였다.

도당위원회는 그를 리수복청년동맹대장으로 내세우고 도급기관인 당, 행정책임자들이 참가한 강연회에 출연시키였다. 이것을 계기로 도안의 사상일군들은 자기 단위에 만명의 총영원이 있다고 해도 매 사람의 머리속을 손끝보듯이 들여다보고야 하며 만가지 처방을 가지고 사업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었다.

들을 깨니 열, 백이 생겼다

사상사업에서의 넓은 틀을 깨고 형식과 방법을 혁신하는것이 사상사업의 실효를 최대한으로 높여 해방 단위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총원군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시하였기 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에서 굳어진 낡은 틀을 깨고 끊임없이 혁신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실례가 되었다.

자연호름식수도화공사와 관련하여 진행된 강연회에서 사상사업이

의 굳어진 방법으로는 사상사업의 실효를 기대할수 없다고 보았던것이다.

《사상사업에서 굳어진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창조할수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일군들을 회의실에 불러들일것이 아니라 넓은 운동장에서 체육경기장을 조직하는 계기를 리용합니다.》

군당책임비서의 발기에 따라 진행된 체육경기는 참으로 불만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운동장은 자강도사람들의 이악한 승려심과 기질, 집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마당으로 되었다.

경기가 끝난 다음 군당책임일군은 사람들앞에 나갔다.

이제 우리 군은 주민들의 먹거리문제와 관련한 공사를 진행 하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자체의 힘으로는 어렵지 않은 공사라고 머리를 기웃거리고있다. 과연 우리에게 힘이 없는가. 이렇게 수많은 일군들과 인민들이 있으면서도 인민생활문제로 초강도강행군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야 되겠는가.

그의 말은 걸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체육경기로 한정 말아오는 군중의 심정에 불을 지퍼준 계기점으로 되었다. 운동장이 떠나갈듯 호응하는 군중의 목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자연호름식수도화공사는 이

렇게 시작되었다.

이런 정치사업방식으로 첫걸음을 뗀것처럼 공사의 전과정을 새로운 정치사업방식들로 이어졌다.

드디어 기적은 창조되었다. 읍지구에 수도관을 놓이기 위한 굴착작업은 단 이틀만에 끝났고 1년을 내다보던 그 방대한 공사는 불과 한달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공되었다. 이것은 사상사업의 고정격시화된 낡은 틀을 깨고 대중의 심정에 직접 불을 다는 혁신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이룩한 성과들중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기로 사상사업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뒷바라지가 되었다.

결과 능동불과 생산현장, 건설장 등 군안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시대의 승결과 높이고 대중의 심정을 쿵쿵 울리는 참신하고 박력있는 화신식정사업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이 련속 창조되었으며 사상사업의 실효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눈에 띄는 성과들은 늘어났다. 100년래의 왕가물을 이겨내고 이룩한 농사작황, 산림조성사업에서의 혁신, 낱을 따라 일선되어가고있는 군의 면모...

결국 사상사업에서 굳어져있던 낡은 틀을 깨어 열, 백을 얻은셈으로 되었다.

윤 명 철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들어쥐고

도당위원회는 주제혁명사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사상사업의 생명선으로 들어쥐고 여기에 화력을 총집중하였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계획을 바로세우고 강하게 밀고나갔다.

도당위원회 비서 장성호, 부장 박동철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자신들 부러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각들과 당정책을 완벽케하고 이배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심화시켰다. 모든 단위에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기 위하여 분기에 1차씩 단위별

집중포화, 련속포화

도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사상전진기가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편성된대 맞게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는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그중의 하나가 사상공세의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어대어 도안의 대고조연역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부를부갈 끌어내치게 한 것이다.

화력탄생상을 결정적으로 늘일대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았을 때였다.

도당위원회는 도에출산, 도에출산전대, 시, 군기동에출산전대, 동내합기동에출산전대를 비롯한 40여개 단위의 배우들과 경제선동대원들을 망라한 집중경계선동대를 조직하고 화력탄생보장단위들에 파견하였다.

배우들과 경제선동대원들은

집중포화, 련속포화

도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사상전진기가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편성된대 맞게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는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그중의 하나가 사상공세의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어대어 도안의 대고조연역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부를부갈 끌어내치게 한 것이다.

화력탄생상을 결정적으로 늘일대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았을 때였다.

도당위원회는 도에출산, 도에출산전대, 시, 군기동에출산전대, 동내합기동에출산전대를 비롯한 40여개 단위의 배우들과 경제선동대원들을 망라한 집중경계선동대를 조직하고 화력탄생보장단위들에 파견하였다.

배우들과 경제선동대원들은

말라진 발걸음

3일동안에 전부 끝났다. 시비년도비로생산계획은 빛나게 수행되었다.

원로부족난이 조성되면 직접 화차를 타고 급야청년탄광으로 달려가 탄부들과 탄도 함께 케고 기관차들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불같은 모습을 보아오기로 한 그는 말라진 발걸음으로 향일유격대나팔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증거없는 호칭

와우도구역 대대담배전문협동농장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저녁무렵 온산제 5작업단 6분조 포전에 가니 농장원들이 누군가의 손목을 꼭 잡고 헤어

말라진 발걸음

3일동안에 전부 끝났다. 시비년도비로생산계획은 빛나게 수행되었다.

원로부족난이 조성되면 직접 화차를 타고 급야청년탄광으로 달려가 탄부들과 탄도 함께 케고 기관차들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불같은 모습을 보아오기로 한 그는 말라진 발걸음으로 향일유격대나팔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증거없는 호칭

와우도구역 대대담배전문협동농장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저녁무렵 온산제 5작업단 6분조 포전에 가니 농장원들이 누군가의 손목을 꼭 잡고 헤어

말라진 발걸음

3일동안에 전부 끝났다. 시비년도비로생산계획은 빛나게 수행되었다.

원로부족난이 조성되면 직접 화차를 타고 급야청년탄광으로 달려가 탄부들과 탄도 함께 케고 기관차들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불같은 모습을 보아오기로 한 그는 말라진 발걸음으로 향일유격대나팔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증거없는 호칭

와우도구역 대대담배전문협동농장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저녁무렵 온산제 5작업단 6분조 포전에 가니 농장원들이 누군가의 손목을 꼭 잡고 헤어

말라진 발걸음

3일동안에 전부 끝났다. 시비년도비로생산계획은 빛나게 수행되었다.

원로부족난이 조성되면 직접 화차를 타고 급야청년탄광으로 달려가 탄부들과 탄도 함께 케고 기관차들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불같은 모습을 보아오기로 한 그는 말라진 발걸음으로 향일유격대나팔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증거없는 호칭

와우도구역 대대담배전문협동농장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저녁무렵 온산제 5작업단 6분조 포전에 가니 농장원들이 누군가의 손목을 꼭 잡고 헤어

향일유격대나팔수처럼

《손맥이 풀리누만.》

《저 높은 람우로 어떻게 그 많은 축대들과 부분들을 끌어올려 보수한단 말이야. 그것도 다섯대동안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뚝뚝의 정황이 발생한 가스청정공정 조달류담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흥남비로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김경태동무의 가슴은 아르게 조여들었다.

(이런 때 당선전일군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눈앞에 언제나 수평경사용의 전초진, 평명관철의 최전방에 서있던 향일유격대나팔수의 군상이 뚜렷이 안겨졌다.

향일유격대나팔수처럼

《손맥이 풀리누만.》

《저 높은 람우로 어떻게 그 많은 축대들과 부분들을 끌어올려 보수한단 말이야. 그것도 다섯대동안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뚝뚝의 정황이 발생한 가스청정공정 조달류담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흥남비로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김경태동무의 가슴은 아르게 조여들었다.

(이런 때 당선전일군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눈앞에 언제나 수평경사용의 전초진, 평명관철의 최전방에 서있던 향일유격대나팔수의 군상이 뚜렷이 안겨졌다.

향일유격대나팔수처럼

《손맥이 풀리누만.》

《저 높은 람우로 어떻게 그 많은 축대들과 부분들을 끌어올려 보수한단 말이야. 그것도 다섯대동안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뚝뚝의 정황이 발생한 가스청정공정 조달류담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흥남비로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김경태동무의 가슴은 아르게 조여들었다.

(이런 때 당선전일군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눈앞에 언제나 수평경사용의 전초진, 평명관철의 최전방에 서있던 향일유격대나팔수의 군상이 뚜렷이 안겨졌다.

향일유격대나팔수처럼

《손맥이 풀리누만.》

《저 높은 람우로 어떻게 그 많은 축대들과 부분들을 끌어올려 보수한단 말이야. 그것도 다섯대동안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뚝뚝의 정황이 발생한 가스청정공정 조달류담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흥남비로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김경태동무의 가슴은 아르게 조여들었다.

(이런 때 당선전일군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눈앞에 언제나 수평경사용의 전초진, 평명관철의 최전방에 서있던 향일유격대나팔수의 군상이 뚜렷이 안겨졌다.

향일유격대나팔수처럼

《손맥이 풀리누만.》

《저 높은 람우로 어떻게 그 많은 축대들과 부분들을 끌어올려 보수한단 말이야. 그것도 다섯대동안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뚝뚝의 정황이 발생한 가스청정공정 조달류담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흥남비로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김경태동무의 가슴은 아르게 조여들었다.

(이런 때 당선전일군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눈앞에 언제나 수평경사용의 전초진, 평명관철의 최전방에 서있던 향일유격대나팔수의 군상이 뚜렷이 안겨졌다.

향일유격대나팔수처럼

《손맥이 풀리누만.》

《저 높은 람우로 어떻게 그 많은 축대들과 부분들을 끌어올려 보수한단 말이야. 그것도 다섯대동안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뚝뚝의 정황이 발생한 가스청정공정 조달류담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흥남비로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김경태동무의 가슴은 아르게 조여들었다.

(이런 때 당선전일군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눈앞에 언제나 수평경사용의 전초진, 평명관철의 최전방에 서있던 향일유격대나팔수의 군상이 뚜렷이 안겨졌다.

향일유격대나팔수처럼

《손맥이 풀리누만.》

《저 높은 람우로 어떻게 그 많은 축대들과 부분들을 끌어올려 보수한단 말이야. 그것도 다섯대동안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뚝뚝의 정황이 발생한 가스청정공정 조달류담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흥남비로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김경태동무의 가슴은 아르게 조여들었다.

(이런 때 당선전일군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눈앞에 언제나 수평경사용의 전초진, 평명관철의 최전방에 서있던 향일유격대나팔수의 군상이 뚜렷이 안겨졌다.

향일유격대나팔수처럼

《손맥이 풀리누만.》

《저 높은 람우로 어떻게 그 많은 축대들과 부분들을 끌어올려 보수한단 말이야. 그것도 다섯대동안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뚝뚝의 정황이 발생한 가스청정공정 조달류담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흥남비로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김경태동무의 가슴은 아르게 조여들었다.

(이런 때 당선전일군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눈앞에 언제나 수평경사용의 전초진, 평명관철의 최전방에 서있던 향일유격대나팔수의 군상이 뚜렷이 안겨졌다.



회상기학을 통하여 향일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고있다. - 평양수지연필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 광 혁 작음

배낭을 메고 대중속으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장을 나서는 길로 장풍군, 신계군을 비롯한 도안의 농촌들이 달려나간 황해북도당 일군들의 어깨에는 하나같이 짐작하고 목격한 배낭들이 메워져있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었다.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위대한 사상적무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사훈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농업정책들이 수록된 불후의 고전적로각들, 절세위인들의 위대장서도, 농업과학기술도서와 잡지들, 문예도서들, 상식자료들과 노래집...

한가지한가지가 다 농업근로자들에게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겨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무기였고 혁명의 원수들에게는 불완전과 공포를 안겨주는 사상적폭탄이었다.

그 배낭을 메고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간 도당일군들은 지난 1년간 대중과 한가마를 먹고 일도 함께 하면서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비약이 이룩되었다. 신계군에서 수습된 대기를 5월말까지 팔면것을 비롯하여 공정별영농전투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100년래의 왕가물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었다. 향일유격대배낭을 무겁게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정을 주고 사상전의 뒷바라지를 일인적해하였다.

비록 세월의 흐름과 함께 눈비에 색이 바래고 보풀은 일수있어도 절대로 가벼워져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향일유격대배낭이다.

백두의 품목으로 배낭의 무게를 0.001g도 가볍게 하지 말고 더욱 무겁게 메고 끊임없이 군중속으로!

이것이 전당의 사상일군들의 철석의 신념이고 의지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수필

말라진 발걸음

그는 주저없이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았다. 한m, 또 한m... 온몸이 떨주머니가 되어 아스라한 람우에 오른 그는 손맥을 놓은 로동자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하루밤사이 온 흥남에서 떠돌던 그의 발걸음은 흥남비로련합기업소의 심야강행군이야기, 옷자락을 땀으로, 비로 흠뻑 적셔져서 땀이 찾아오셨던 농민들 손바닥강행군이야기...

절세위인의 강행군정신은 난관을 뚫고나가는 당선전일군의 절결한 호소와 헌신은 대중의 심정에 불을 지퍼주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5일이상 걸려야 하던 조달류담부수는

수필

말라진 발걸음

그는 주저없이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았다. 한m, 또 한m... 온몸이 떨주머니가 되어 아스라한 람우에 오른 그는 손맥을 놓은 로동자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하루밤사이 온 흥남에서 떠돌던 그의 발걸음은 흥남비로련합기업소의 심야강행군이야기, 옷자락을 땀으로, 비로 흠뻑 적셔져서 땀이 찾아오셨던 농민들 손바닥강행군이야기...

절세위인의 강행군정신은 난관을 뚫고나가는 당선전일군의 절결한 호소와 헌신은 대중의 심정에 불을 지퍼주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5일이상 걸려야 하던 조달류담부수는

수필

말라진 발걸음

그는 주저없이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았다. 한m, 또 한m... 온몸이 떨주머니가 되어 아스라한 람우에 오른 그는 손맥을 놓은 로동자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하루밤사이 온 흥남에서 떠돌던 그의 발걸음은 흥남비로련합기업소의 심야강행군이야기, 옷자락을 땀으로, 비로 흠뻑 적셔져서 땀이 찾아오셨던 농민들 손바닥강행군이야기...

절세위인의 강행군정신은 난관을 뚫고나가는 당선전일군의 절결한 호소와 헌신은 대중의 심정에 불을 지퍼주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5일이상 걸려야 하던 조달류담부수는

수필

말라진 발걸음

그는 주저없이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았다. 한m, 또 한m... 온몸이 떨주머니가 되어 아스라한 람우에 오른 그는 손맥을 놓은 로동자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하루밤사이 온 흥남에서 떠돌던 그의 발걸음은 흥남비로련합기업소의 심야강행군이야기, 옷자락을 땀으로, 비로 흠뻑 적셔져서 땀이 찾아오셨던 농민들 손바닥강행군이야기...

절세위인의 강행군정신은 난관을 뚫고나가는 당선전일군의 절결한 호소와 헌신은 대중의 심정에 불을 지퍼주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5일이상 걸려야 하던 조달류담부수는

수필

말라진 발걸음

그는 주저없이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았다. 한m, 또 한m... 온몸이 떨주머니가 되어 아스라한 람우에 오른 그는 손맥을 놓은 로동자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하루밤사이 온 흥남에서 떠돌던 그의 발걸음은 흥남비로련합기업소의 심야강행군이야기, 옷자락을 땀으로, 비로 흠뻑 적셔져서 땀이 찾아오셨던 농민들 손바닥강행군이야기...

절세위인의 강행군정신은 난관을 뚫고나가는 당선전일군의 절결한 호소와 헌신은 대중의 심정에 불을 지퍼주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5일이상 걸려야 하던 조달류담부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기념 연구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기념 연구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기념 연구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녀맹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9(2010)년 2월 24일에 발표하신 로작에 당철적녀성운동과 녀성동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시대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의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기념 연구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녀맹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9(2010)년 2월 24일에 발표하신 로작에 당철적녀성운동과 녀성동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시대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의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기념 연구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녀맹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9(2010)년 2월 24일에 발표하신 로작에 당철적녀성운동과 녀성동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시대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의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기념 연구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녀맹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9(2010)년 2월 24일에 발표하신 로작에 당철적녀성운동과 녀성동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시대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의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기념 연구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녀맹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9(2010)년 2월 24일에 발표하신 로작에 당철적녀성운동과 녀성동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시대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의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기념 연구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녀맹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9(2010)년 2월 24일에 발표하신 로작에 당철적녀성운동과 녀성동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시대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의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기념 연구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녀맹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9(2010)년 2월 24일에 발표하신 로작에 당철적녀성운동과 녀성동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시대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의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기념 연구대회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녀맹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9(2010)년 2월 24일에 발표하신 로작에 당철적녀성운동과 녀성동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선군시대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의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워간다

사회주의농촌레제발표기념일을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고있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농법도입으로 담보되는 알곡증산에비

사회주의농촌레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절명하기 위한 농사작전과 실천을 과학적으로 해나가는 문덕군 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으로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그러면 그 예비를 어디에서 찾아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평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요소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제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데 있다.》**

군책임 일군들은 조국해방 일흔과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지난 기간보다 알곡생산량을 10% 더 늘일 목표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사회주의농촌레제발표 50돐을 맞으며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약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당의 농업정책과 주제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자연지리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데서 다수작의 기본 열쇠를 찾아내게 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농사작전을 세울 수 있었다.

풍족배치를 지대특성에 맞게 한것을 높이고보자.

문덕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자기 고창의 지대특성을 잘 타산하여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알맞은 품종을 받아들이는것은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의 하나이다. 이것을 깊이 새긴 일군들은 여러가지 농사조건과 대비하여 논벼품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난해 군에서는 여러가지 다수작 품종들을 받아들이었다. 더우기 중간늦종의 3가지 품종을 80%면적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런데 가을의 결실은 포전마다 달랐다.

따라서 결과 물보장조건에 따라 그 결실이 차이났다. 물보장이 잘된 포전에서는 수확고도 올라갔고 그렇지 못한 포전에서는 수확고가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군안의 모든 포전이 다 그런것은 아니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정보당 수확고가 올라간 포전이 있었다. 비결은 가을경건일성이 센 품종을 배지한데 있었다. 이것은 수확고가 높은 다수작품종이라고 하여도 물조건을 고려하여 배지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농사조건을 잘 타산하여 논벼품종을 배지하면 불리한 상태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었다.

찾은 교훈이 클수록 결실이 새로워지는 법이다.

일군들의 사업에서

일군들은 올해에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온을 낼수 있는 영양단지와 영양양모를 80% 이상의 면적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여기서 이들이 잘한것은 영양양모에 의한 큰모배방향을 받아들이도록 한것이다. 영양양모를 종전에 비해 크게 키우면 모살이 거의 없을뿐 아니라 1차, 2차이자를 튼튼히 키워내기 때문에 목표하였던 수확가 확보되어 높은 수출을 낼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를 위해 수지형관홍의 직경과 깊이를 종전보다 크게 하도록 하였다. 그제야 비로소 저지의 영양토를 가지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게된것이였다. 이 방법을 20%의 면적에 받아들일 목표를 세우고 수지형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평당 포기수를 정하는 문제에도 힘을 넣었다. 올해에 지력에 따라 비모의 평당 포기수를 달리하면서 소식제배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것은 소식제배가 포기당 영양면적을 크게 하며 통풍과 빛조건을 개선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뿐 아니라 적은 물을 가지고도 안전한 수출을 내는 물약형농법이기에였다.

여기서 문제로 된것은 실지

삼촌목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외방역사업을 잘하여야 집집의 돼사투를 낮추고 축산물 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삼촌목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경쟁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축산물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고있다. 목장에서는 한해에 수십의 돼지와 닭, 오리, 닭, 개사, 돼지, 오리 등 여러가지 집짐승을 함께 기르는 조건에서 그 어느 단위보다 수외방역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이때 잘한것은 목장지역의 자연지리특성을 리용하여 우리를 건설한것이다.

목장은 침침산밭과 깊은 골짜기들이 넘쳐나며 집집을 저나르면서 물이 새지 않게 연계를 쌓아나갔다. 결과 수외방역의 논에서 지난해보다 정보당 논벼를 더 생산할수 있는 전방을 마련하였다.

군책임일군은 일군들에게 알곡증수의 중요성의 하나가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중남협동농장의 지하수지건설경험을 일반화하자고 하였다. 모두가 합리적인 방도라고 하면서 지지하였다.

다음날 지도를 펼쳐본 군 일군들은 현지에서 돌아오면 로인들을 만나 하천들의 자연지리특성을 알아보았다. 원반, 덕살, 송석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 조급한 품을 들이던 얼마든지 지하수지를 건설할수 있었다.

농장에 내려간 군일군들이 잘한것은 자연지리특성을 보고 골포공사를 하여 지하수지의 물이 골포에도 흘러들도록 하도록 한것이다. 이렇게 하면 수백m의 물을 더 잡을수 있게된것이였다. 이에 따라 여러 농장들에서 지하수지건설과 함께 골포공사 시작되었다. 한편 현지에 나가 대중과 어울린 군 일군들은 진흙으로 연계를 쌓을 때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닐박막을 리용하는 방법을 받아들일게 하였다.

군일군들의 경험은 지하수지건설을 물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항목의 하나로 정하고 자연지리특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 알곡생산을 높여 사회주의농촌레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윤용호

실정에 맞게 세운 방역대책

기들이 있는 산림지대에 위치하고있다. 목장일군들은 군일군들과 힘을 합쳐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산외방역사업을 하도록 하고 골짜기마다에 골짜기 집집을 리용하여 돼사투를 낮추고 축산물 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한해에 수십의 돼지와 닭, 오리, 닭, 개사, 돼지, 오리 등 여러가지 집짐승을 함께 기르는 조건에서 그 어느 단위보다 수외방역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이때 잘한것은 목장지역의 자연지리특성을 리용하여 우리를 건설한것이다.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에서 찾아보수 있는 또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종류가 다르나 서로 또는 어느 한쪽이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집짐승들의 공생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방역대책을 세운것이다. 그 실제의 하나가 토끼와 닭, 돼지와 오리를 함께 기르는것이다. 이렇게 함께 키우면 토끼가 닭을 배설물에서 멀리 떨어뜨려주어 닭이 병을 예방할수 있다는것을 포착한 일군들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는데, 산림이 무성하니 닭이 병을 예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앞 당 긴 논 같이 계획

북창군 남상협동농장의 일군들이 농사작전을 하면서 중시한 문제가 있다. 기계화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여 논같이 지내야 한다는 보름이상 앞당기기로 한것이다.

농장 전체의 20%정도가 같이농법에 자갈이 많았다. 이런 포전들에서는 논같이 할 때 자갈이 흩어 쉬어져 여러모로 불리하였다. 또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드는것도 문제였다. 이같은 염려가 더욱 4월 초부터 논같이 하였는데 물이

많이 들었다. 결국 논같이속도와 질을 보장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합리적인 논같이방법을 찾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자갈이 많은 포전들에 대한 논같이방법을 알아가게 진행하자 한 일군의 의견이 주목을 끌었다. 농장의 포전들은 3월 중순이 되면 땅이 얼정해 녹는다. 이때 논같이하면 녹지 않은 층이 얼음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군들은 서두르지 않고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데 기초하여 이 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같이속도를 지난 시기보다 1.5배로 높일수 있었다. 또한 자갈층을 들추지 않기때문에 물이 새는 현상을 막고 많은 물을 잡아둘수 있어 더욱 좋았다. 그리고 자갈이 섞이지 않아 비배관에도 유리하였다.

신심이 생긴 일군들은 논가지를 앞당기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그들은 트랙도수리정비와 부림소영양관리, 중소농기구준비에 큰 힘을 넣어 일단 논같이 작업이 시작되면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활철민

박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박천군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사회주의농촌레제에서 제시된 수리화의 과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특히 알곡증수의 중요성의 하나를 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찾고 지하수지건설에 힘을 넣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남협동농장에서 이미 이러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관계시설들을 건설하고 여러가지 현대적 관수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관계체계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올해 알곡증수의 중요성의 하나가 물문제해결에 있다는것을 깊이 새긴 군일군들은 중남협동농장의 지하수지건설경험에 주목을 돌리었다.

원래 이 농장에서는 우물들을 파고 장량이영양단지를 하여 비모와 장량이영양단지를 키워낼수 있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마련하였다. 그런데 왕가물의 영향으로 물량이 줄어는 조건에서 모내기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담보는 없었다.

이로부터 농장일군들은 하천바닥을 파고기로 결심하고 농장원들과 함께 하천으로 농장이다. 모래와 자갈을 헤치며 1.5m정도 깊이 파니 물이 흘러는데 그 땅은 적었다. 하지만 알반이나 진흙층이 나올 때까지 파고 연계를 쌓으면 땅속에서 흐르는 물을 잡을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지하수지건설작업을 펼친 농장일군들은 다음 식물성농약을 생산하여 리용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이들은 질 좋은 비료성농약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물원확보에도 관심을 돌리었다. 아무리 파일나무마다 많은 열매가 달렸다고 해도 가을피해를 받으면 품질을 높일수 없다. 더우기 물원확보에는 단맛과 신맛, 향기, 수분, 굳기가 알맞은 맛은 파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요이다.

일군들은 지난해의 파일농사경험에 기초하여 물보장조건이 불리한 호천에 보조수원건설을 발기하였다. 물원확보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제4, 6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의 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40여개소에 준공을 비롯한 물확보시설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당면한 가지치기와 질 좋은 파일나무모양 등 일군들이 작전하는 일들은 그 어느것이 나 맞은 파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었다.

하기이 이곳 근로자들은 사파리의 파일생산은 막판적이므로 하면서 신심에 넘쳐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활연옥

지하저수지건설을 중시한 리유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전반과학기술인재회의의 구조를 높이 들고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립학락 찍음

파수에서 패권을 쥘 목표

사회주의농촌레제의 휘황한 빛앞에 천지개벽된 이 이름도 정다운 사과리!

물결치는 사과꽃 향예피고 가을이면 향기로운 열매 주렁주렁는 덕성사과농장, 직선직각으로 늘어선 키낮은사과나무들...

불수록 그 풍치도 회한하지만 파수에서 패권을 쥘 자신만만한 배심안고 맞좋은 과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일본배가 더욱 돋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배우산위인들의 명도업적을 더욱 빛내기 위해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정보당 과일생산량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 패권을 쥘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새 파수연에 정보당 100t의 거름을 실어내기 위한 목표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힘찬 전투를 벌였으므로 현재 수년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가 생산되었다.

일군들은 정보당 과일생산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병해충피해를 미리막는것이다. 이 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식물성농약의 리용률을 높여 병해충피해를 막는것은 물론 무공해과일생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지난 기간 농장에서는 감자순작업, 농부산물을 리용한 건류액과 같은 식물성농약을 자체로 만들어쓰는 과정에 그 우월성에 대하여 더 잘 파악하게 되었다. 화학농약을 쓰면 대체로 처음에는 병해충을 죽이지만 여러번 반복하여 사용하는 과정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약효의 지속시간도 점차 짧아졌다. 그것은 병해충들이 화학농약에 견디는 면적이 생기는 것과 관련되어있었다. 그러나 식물성농약은 아무리 반복하여 써도 병해충을 죽이는 힘이 약해지지 않았으며 약효의 지속시간도 매우 길었다.

농장일군들은 지난 기간의

본사기자 활연옥



위대한 농촌레제의 빛앞에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일 일념안고 농사차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흥단군 농사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호평받는 영양단지모내는기계

배천군 수원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배천군 수원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사회주의농촌레제 가리키는 길을 따라 농업생산에서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 농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영양단지모를 100%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과 지혜를 합쳐 영양단지모내는기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올해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로 하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 기계는 하루에 2정보의 논에 모를 낼수 있다고 한다. 올해는 이 기계로 영양단지모내기때문에 로력도 훨씬 적게 들고 모내기도 짧은 기간에 할수 있게 되었다.

관리위원장들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처음 영양단지모배방법을 받아들일 때 많은 품이 든것을 알게 되었다. 1정보에 내는 모의 물량만 해도 6~7t이 되어 모운반과 모내기에 많은 로력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종전의 모내는기계를 개조하여 영양단지모내는기계를 만들것을 결심하였다. 낫과 밭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그들은 종전의 모내는기계를 영양단지모

특성에 맞게 개조하였다. 하지만 첫 시험에서 부족점이 나타났다. 그러자 손맥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리당비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년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만드시 성공하게 된다고 고무해주었다. 모두가 분발해나섰다. 집체적인 지혜에 기반한 착상이 나왔다. 그것은 안내용박에 제지장치를 달아주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장치에 의해 안내에서 영양단지모가 떨어지지 않고 미끄러져내리게 되어 있어 종전의 결함을 극복할수 있었다.

결과 모든 작업반들에서 영양단지모내는기계를 만들게 되었다. 낫과 밭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그들은 종전의 모내는기계를 영양단지모

전 명일

본사기자 정영철

본사기자 정영철

시대와 역사앞에 쏘아올리신 절세위인의 선군령도업적은 영원할것이다

여러 나라 정당, 정부 성, 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12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정당, 정부 성, 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대원수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라오스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회, 라오스공산당, 브라질 자유노동당,

평명성절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에서는 토론회가, 주체사상연구협회에서는 집회가, 까멜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에서는 강연회가 7일과 9일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은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쉬 우발라모라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장군, 참다운 애국자,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이시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바치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입실단결의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며 날로 발전하고있다.

조선은 인공지구정체작 및 방사국, 핵보유국이며 그 어떤 제국주의세력의 침략도 짓부셔 버릴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는 불멸의 강국이다.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특헌한 도대와 쏘아올리신 업적을 떠나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승리의 전통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졌다.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은 우리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영정적이고 로속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명도하고계신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신다.

그이께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조지아프리코프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특헌한 도대와 쏘아올리신 업적을 떠나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특헌한 도대와 쏘아올리신 업적을 떠나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결출한 수령이시며 진정한 인민의 영도자이시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방사국으로 되었다.

조선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있을뿐 아니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로씨야 까멜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키프르 예고르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선군시대를 펼치신 희세의 명장이다.

그이께서는 김일성동지의 넘णी이었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 로조선전판개발에 쏘아올리신 업적을 로씨야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올리신 축언이 채택되었다.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이팔리아에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대한 토론회가, 이팔리아에서 피담회, 영화감상회가 7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보다 더 많은 일을 더 중시하고있다.

그이께서는 나라와 인민을 이끄시는 전로정에 어떤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어떤 문제를 처리하시여도 언제나 수심, 수백년을 내다보시며 조국의 장래를 우선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힘찬 길을 쉬임없이 걷고 또 걸으신분이다. 그이께서는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최대의 속도로 밀고나가시여 미래를 앞당겨오시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담보나 불가, 적당히한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상을 하루밤일 실현하시려는 굳센 의지를 지니시고 최약의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쳐 오신분이다.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영상은 조선인민군이나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깊이 빛날것이다.

신문 《티슈린》 13일부와 신문 《알 사우라》 16일부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동지의 탄생 73돌》을 축하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반인륜적범죄를 덮어버리려는 후안무치한 망동

티끌만 한 량심도 없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렴성이 또다시 드러났다. 얼마전 미국의 역사학자 19명이 일본당국의 역사외교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과거 일본의 성노예범죄행위를 상세히 폭로한 미국의 교과서내용을 수정해보려는 일본정부의 온갖저 못한 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담하였다. 일본당국이 성노예범죄를 역사에 날리고 증언자들의 이기기를 서술하는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압력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장이 전해지자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일본의 너털한 행동에 침을 뱉었다.

미국에서 사용되고있는 교과서들에서 성노예범죄내용만이라도 뺏아보려고 모지름을 써오면 일본으로서의 참모도 모지름을 버리며 부잡스레 늘어대던 일본당국자들은 이번 일로 께개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일이 이쯤 되었으면 일본으로서의 용감히 수치를 느껴야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철면피하게도 도리어 남을 걸고드는 피안한 잡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정계에서 제2차라는 인물들이 나서서 미국의 교과서들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다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겨져있기때문에 수정을 요구하였다고나 뭐니 하는 너털들을 늘어놓고있다.

그야말로 낮가죽이 품발통같은자들만이 제칠수 있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다.

일본의 역사외교정책은 온데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른 나라의 역사외교정책내용까지 외무해보려고 파렴치하게 늘어편지는 없었다.

역사는 외무관이라고 하여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 일본정부가 성노예범죄의 조직자였으며 실행자였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를 증명하는 자료들은 일본방위성과 외무성문서고에서 나왔으며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발굴되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랍치, 누르, 강제연행하여 전쟁터에 끌고다니면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이로 하여 수많은 조선녀성들이 낯설고 물결은 이국땅에서 무참히 숨졌으며 구수물결은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일깨워 주치고 모멸감, 고통속에서 살다가 비명에 죽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제의 만행이 잔악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할수 없다. 국제사회가 성노예범죄를 두고 치를 멀며 일본을 그처럼 혐오스럽게 대하는것은 그것이 강제적이며 가아반적인 방법으로 강행된 반인륜적범죄이기때문이다.

일백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느끼고 사죄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륜도덕이고 법칙요우며 판례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할 대신 도덕적으로 나옴이다. 일본반동들은 과거 성노예범죄를 기를 쓰고 부정하고있다. 성면에 서 억울함을 표시하며 증거가 없다는니, 사실이 지지치게 주장되었다니 뭐니 하는 꾀변들을 늘어놓고있다.

역사교과서에서 성노예범죄내용을 모호하게 만드는 놀음을 벌려놓다 못헤 사제는 일부 교과서들에서 《중군위안부》, 《강제연행》표현을 완전히 배제했다. 자외외교대부들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의 역사교과서내용까지 수정할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해군에서 나서서 《위안부》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으며 《위안부》가 노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발을 늘어놓고있다.

일본에서 성노예범죄부정행위는 날이 갈수록 그 도수가 높아지고있다. 일본당국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일깨워 주고 고도화할 놓고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요술을 부리고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보수적자들은 《이전 판본장판 노고 강제연행이 온실대였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얼마

전에는 8700명이 넘는 일본의 구우익분자들이 성노예범죄사실을 실은 《아사히신문》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면서 집단적으로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부정하였었다.

세상에 본의든 아니든 잘못을 저지른 나라와 민족들이 적지 않지만 일본처럼 이렇게 철면피하게 행동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범죄자들의 도덕적저렴성은 이제 완전히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이 성노예범죄행위를 부정하는 목적은 단대 있지 않다. 반인륜적범죄사실을 덮어버림으로써 과거청산을 회피하는것이다.

세계는 이것을 통하여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는것을 싫어하며 일본특유의 고질적인 악습과 교활성을 다시 한번 보고있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제야무리 교활하게 책동하여도 과거범죄는 감출수 없다. 인류앞에 범죄를 저지른자들은 어느때든지 그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일본에 있어서 과거청산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고 또 회피할수 없는 법적의무이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늦게나마 자기의 잘못을 성근하게 인정하고 과거청산의 길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의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년간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쏘련의 역할과 공적을 외목하고 나치침을 선동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를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전범법이라고 도이힐한다는 책임이 없다는니, 쏘련군이 도이힐란드를 먼저 공격했다니 하는 황당한 주장들이 왕왕 울려나오고 있다.

파프도이힐란드의 부총통이었던 히틀러의 심복이었던 루돌프 헤스의 묘를 《성지》로 묘사하며 《순례》하는 망동도 벌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시기를 히틀러대신 나치스친위대의 창설을 기념하는 팸대국까지 펼쳐졌다.

그런이 아니다.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를 나치침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쏘련군인들의 기념비가 해체되고 반면 나치침기념비가 세워지고있으며 나치침의 상징, 포식물들이 버젓이 사용되고있다.

구우익분자들의 분별없는 망동으로 사회의 안정이 파괴되고 엄중한 인명피해까지 나옴이다. 2008년에 도이힐란트에서만도 구우익분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무려 2만여건에 달하였다.

유럽에서 나치침을 미화하고 신봉하는 구우익경향이 얼마나 전범법이라고 불리는가를 보여주는 실례가 있다.

2013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나치스도에이힐란트의 오스트리아병참 75년을 계기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나 있다.

조사에서 히틀러의 지배하에 있던 시기에 대해 《도덕적이 나빴던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비율이 42%에 달하였다고 한다.

16살이상의 선거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나치스금지법률이 없었더라면 나치스사상이 접수되어 나치스를 신봉하는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리라 고 생각하지가?》라는 물음에 54%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대답하였다.

조사결과를 사람들은 아연

에서 연설하면서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역사를 외목수정하려는 일부 나라들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대통령은 역사를 대해 침묵을 지키고 외목수정하려는 로골적인 시도는 용납할수 없는 행위이며 그러한 책동의 리면에는 파쇼분자들과의 공모행위도 포함되려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가했다. 세계에는 인간중요사상이 있는 배회하고있으며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정도에 따라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범죄이며 참을수 없는 도전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로씨야수상 메드베제는 정치적목적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색을 외목하고 전범사들과 파시스트공범자들을 《영웅》으로 내세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를들을 비도덕적이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전쟁의 참화를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류가 인종배타주의를 옹호한 탓에 연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렀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럽에서 심각해지는 역사외목, 역사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공공연한 묵인비호에 대한 역사를 둘러싼 정치적갈등과 마찰은 더욱 첨예해질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패의 강군으로,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